인도네시아, APP사 채무조정 논의
총 120억 달러 규모

인도네시아 APP사는 지난달 9일, 5백여명에 달하는 채권자들을 만나 총 1백2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및 차후 계획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APP사는 회의를 통해 채권자들과 협상의 여지를 찾으면서 동사는 Credit Suisse First Boston(adviser)로 하여금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5~6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지난해 3/4, 4/4분기의 손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APP의 financial position과 그룹의 총부채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APP는 채권자들에게 정상적인 공장 운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선처하고 있다. APP의 회계감사인 Arthur Andersen은 각 공장들에 대한 가치 평가와 자회사들에 대한 처분에 관련해 그룹의 회계 정보 접근을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많은 채권자들이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on Center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IBRA의 참석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자산 처분시 우량 자산에 대한 우선권 행사의 우려를 나타내게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IBRA는 '인도네시아를 보호하고 공정한 부채 처리를 극대화하며 APP와 채권자들, 인도네시아 국민의 이익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채권자들과 협력 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번 IBRA의 참석은 BII(Bank International Indonesia)가 제공한 총13억불의 부채에 대한

APP와의 상호 보증에서 기인한 것이다.

APP의 채권자들은 크게 두개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채권보유자들이 한 편을 이루고, 다양한 은행들과 수출 신용 대리인그룹, 무역회사들이 다른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위의 채권자들은 이미 KMPG를 financial adviser로 임명하고 APP가 KMPG에게 모든 회계자료를 공개해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에 벌어진 스왑거래를 통한 2억2천만불의 추가 손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자료 공개 역시 채권자들에 의해 요구되고 있으며 Snar Mas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아닌 APP그룹사로 국한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기 신뢰지수 급속도로 악화
종이, 펄프 등 포장재 수출감소

일본 경기 신뢰지수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일본은행(BOJ) 은 지난달 2일 3월 기업단기경제관측 조사인 단칸보고서를 발표, 일본의 대기업 제조업체들의 경기신뢰지수가 9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추세로 반전돼 -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이들 부문 단칸지수는 10이었다.

대기업 비제조업의 신뢰지수는 마이너스 13으로 이전 조사보다 3포인트 더 나빠졌고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27, 중소기업 비 제조업은 마이너스 28로 각각 두 자리 수의 마이너스 지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경기 신뢰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일본 기업들이 경제에 대해 비관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3월 경기신뢰지수 하락을 미국경제 불안과 주가폭락 에 따라 경기가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미국 경기의 영향을 받아 정보기술(IT)분야와 전기기계 분야 가 낙폭이 컸고 종이와 펄프, 포장재분야 등도 급격한 수출감소로 내림세를 보였다.

분기별로 발표되는 단칸보고서는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최고의 지표로 부문별로 지난 분기에 비해 경기심리가 좋다는 답변을 한 기업 수에서 나쁘다를 한 기업 수를 뺀 수치다.

일본, 삼정조선사 EPS 재활용 플랜트 수주
'용기포장 재활용 법' 확대 실시

일본 삼정조선은 최근 폐발포스티로폴(EPS) 재활용 플랜트를 수주, 공사를 개시했다.

이번에 수주한 플랜트는 점포를 비롯하여 도매시장, 가전제품 판매점, 홈센터 등에서 배출되는 생선상자, 식품용 트레이, 포장용 완충재 등의 발포스티로폴을 수집하여 재자원화하는 플랜트이다.

소니의 특허(상온에서 EPS를 용해하는 리모넨 액)를 이용하여 폐발포스티로폴을 용해, 감용시킨 후에 삼정조선이 개발한 하이비스커스 에버포레이터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폴리스티렌 파렛트와 리모넨 액으로 분리하여 각각 재생 회수하는 것으로 TV, 컴퓨터 디스플레이, 모니터 등 AV 기기 관련을 생산하는 소니에 납품한 EPS 재활용 플랜트의 실적과 기술력이 각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발포스티로폴은 그 특성으로 포장재, 완충재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재활용률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한편 가전제품 등의 완충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 '용기포장 리사이클 법'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어 서멀 재활용과 함께 재자원화를 목표로 하는 매트리얼 재활용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삼정조선에서는 이번의 수주를 계기로 전국의 폐발포스티로폴 배출 각 사가 추진하고 있는 매트리얼 재활용 플랜트 계획에 참가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 천기제철사 박강판 탐상장치 개발
캔용 강판에 적용

일본 천기제철사는 지난 3월 29일, 천엽공업대학에서 개최된 일본철강협회 제141회 춘계강연대회에서 열간압연 후의 박강판 중의 미소 비금속 개재물을 박강판의 전면 · 전단면에 걸쳐 온라인 검출이 가능한 초음파 탐상장치를 개발하여 천엽제철소의 산세 라인에 설치, 작년 9월부터 가동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캔용 강판 중의 비금속 개재물은 유저의 소성가공 공정에서 균열이나 핀홀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금속 개재물을 극소화한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 및 제품의 전면 · 전단면을 검사하여 문제가 되는 비금속 개재물을 검출하는 기술이 중요해진다. 더욱이 최근에는 강판의 박육화가 진행되어 보다 미소한 결함의 검출이 가능한 장치가 요망되고 있었다.

종래에 박강판의 비금속 개재물의 검출장치로서는 판파 탐상장치, 누출 자속 탐상장치 등이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판파 탐상장치는 결함의 검출능력이 낮아 미소한 개재물의 검출이 곤란하며, 누출 자속 탐상장치는 종래법에서는 결함의 검출능력이 가장 높지만 냉간압연 후의 극히 얇은 강판(판두께 0.2mm 정도 이하)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결점이 있었다.

천기제철사가 새로이 개발한 '초음파 탐상장치'는 박강판의 양쪽에 초음파의 송신 프로브와 수신 프로브를 마주 보게 배치하여 송신 프로브가 송신한 초음파 중에서 결함부분에 반사되어 수신 프로브에 도달하는 결함 반사파에 의해 결함을 검출한다.

송신 및 수신프로브를 박강판의 통과 라인에 설치한 수조에 폭방향으로 나열하여 설치하며, 수중에서 전폭, 전장에 걸쳐 비금속 개재물의 검출을 행하는 세계 최초의 획기적인 탐상장치이다.

한편 미소 개재물의 탐상기술에서는 판파 탐상장치가 30년의 오랜 세월에 걸쳐 이용되고 있으며, 냉간 압연전 박강판의 탐상기술로써는 30년만의 획기적인 기술혁신이 된다. 현재 본 장치는 캔용 강판의 제조 라인에 설치했지만 다른 박판 제품에 대한 적용에 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미츠이화학 태국에 PET 수지 공장 건설
동남아지역 생산 거점

일본, 미츠이 화학은, 병용 PET수지의 동남아시아 제3생산 거점으로서 태국에 생산 설비를 건설한다. 2003년 가동을 목표로 년산 10만 톤의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츠이 화학에서는, 벌써 일본 내와 인도네시아의 병용 PET수지 생산 거점에서 설비 증강을 결정하고 있어 태국의 신거점을 더하는 것으로, 아

시아의 생산 · 공급 능력은 연간 36만5천톤 정도 큰 폭으로 확대하게 된다. 미츠이 화학에서는 코어 사업으로서 병용 PET수지의 글로벌 전략에 나서고 있어 확대 기반이 되는 설비 증강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RBN사 재생 파렛트 사업 진출
PP수지 등 이용

산요전기 등의 가전제품의 재활용 회사 아르 · Be · N(RBN)사는, 폐가전으로부터 회수한 플라스틱류의 재생 파렛트화 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분명히 했다. 폴리프로필렌(PP)외, polystyrene(PS), ABS 수지 등이 후보로서 오르고 있다. 재생 수지로서 판매하기에는 다종인 수지류로부터 소재 별로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사에서는 세계 최고 레벨의 선별기를 도입, 한층 더 조립기도 도입할 방침이고, virgin 파렛트와 손색 없는 고순도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PP에 대해서는, 빠르면 연내에도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 되고 있다.

일본, 스미토모 베이크라이트사 설비 증설
말레이시아에서 필름 · 시트 등

일본, 스미토모 베이크라이트사는, 기능성 필름 · 시트 사업으로 해외시장 전개를 본격화한다.

같은 부문 처음의 해외 생산 거점인 말레이지아 거점에서 캘린더 성형의 신라인 1개를 도입해, 공급 능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오는 5월부터 양산을 개시한다. 이것을 기회로, 기존부터 손수 다루고 있던 전자 부품 쟁반용이나 브리스터 팩용 등의 확대판매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아시아 쉬프트가 진행되는 의약품 메이커를 향하고 PTP필름용의 개척을 적극화한다. 아시아를 주체에 성장을 전망할 수 있는 경질 염화비닐 필름에서는 해외 전개를 진행시키는 한편, 국내는 공업용 분야전용 엔프라계 필름 등을 중점이라고 해, 고부가가치 제품에 의한 양면 전략으로 사업 확대해 간다.

일본, 후꾸스케공업사 라미네이트제품 개발
제올라이트 첨가

일본 후꾸스케(福助)공업사는 독자의 인조 제올라이트를 혼련한 다기능형 폴리에틸렌(PE)필름의 응용전개를 가속화 할 예정이다. 이미 채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쓰레기봉투나 슈퍼마켓용 봉투에 이어서 라미네이트에 응용, 가까운 시일에 제품화 할 계획이다. 현재 Boil 특성 등의 최종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용도에의 전개를 도모할 예정이다. 동사에서는 다이옥신등 유기염소계 화합물을 흡착하는 기능을 갖는 환경대응형 제품으로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사는 석탄재를 특수 가공한 인공 제올라이트를 통상의 PE필름에 혼연하여 유기염소계 화합물을 흡착하는 기능을 갖는 PE필름인 "제옥스"를 1998년도에 개발, 지금까지 쓰레기봉투인 '제오더스트' 및 슈퍼마켓 봉투 등에 응용하여 시장개척을 진행 해 왔다. 제올라이트의 결정구조는 스폰지상으로 되 있기 때문에 소각 처분시 다이옥신, 유황화합물, 중금속 등을 흡착 고화한다. 가격은 통상 PE보다

20% 정도 고가이다. 단 금후의 시장확대로 양산효과에 의해 10% 정도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쓰레기봉투는 슈퍼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작년 대도시에서는 최초로 가와사끼시에 채용되는 등 지자체용으로도 보급을 시작하였다. 또한 슈퍼마켓용 봉투에 대해서도 다른 지방의 일부 슈퍼에서 채용 실적이 있다. 라미네이트 제품은 이들에 이은 제품으로 현재 Boil적성 등 테스트단계에 있으며, 동사에서는 식품분야를 목표로 조기에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데이진사 초고분자량 PE필름 개발
콘덴서용으로 사용

일본 데이진사는 본격적으로 초고분자량 PE(폴리에틸렌)필름 사업화에 착수한다. 전자기기에 탑재되는 적층세라믹 콘덴서용으로 수요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2003년 중반을 목표로 세토우치 지역의 공장에 양산 설비를 건설하는 동시에 사업 제휴 상대인 네덜란드의 DSM 솔텍의 생산 능력을 2002년까지 대폭적으로 끌어올린다.

또한 세계적인 규모로 전개시키기 위해 이번 여름에 올란다에 전세계를 판매영역으로 하는 신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일본 메이커가 세계 점유율의 9할 이상을 차지하는 적층세라믹 콘덴서는 휴대 전화나 퍼스널 컴퓨터의 확대를 배경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콘덴서의 소형·대용량화 요구에 따라 현행 PET의 캐리어테이프 위에 세라믹을 도포해 그린 씨트를 제조한다.

일본, 진영화성사 재생PET 필름 사업 확충
다층 시트 설비도 본격 가동

일본의 수지 필름 가공 메이커의 진영화성은, 재활용 PET 필름 사업을 확충한다.

작년, 단층의 재생PET시트 분야에 본격 참가했지만, 이번에 다층 시트 대응 설비를 새롭게 도입, 지난달부터 양산을 개시했다.

능력은 한달 기준 4백톤으로, 이것에 의해 연산 1만 톤 체제를 구축한 것이 된다.

인도포장협회
제7회 국제포장전 개최

인도포장협회는 제7회 인도국제포장전시회가 오는 11월 7일부터 4일까지 봄베이 네루센터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인텔팩 2001(Intelpack 2001)은 아시아포장연맹과 인도포장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포장, 컨버팅과 관련한 산업을 보여주게 된다.

이 전시회는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인도 포장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며 가장 빛나고 빠른 성공의 장이 될 것이라 주최측은 밝혔다.

인텔팩은 지난 1994년 1백8개업체, 1997년 1백18개업체, 1999년 1백21개 업체로 참가업체수가 계속증가하고 있으며, 참관객도 매회 15%이상 늘고 있다.

특히 식음료, 컨버터 및 인쇄, 플라스틱 포장, 제약 및 화학, 수출입, 전기, 전자, 화장품, 섬유, 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시회를 참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ko